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1.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2.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3.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창립 44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5/17)
 - EGTD #21(5/24~27)
 - 목자수련회(5/25)
 -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6/2~5)

가정교회 보고서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정교회 예배안 2026. 5. 17

5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랑 (잠언 31:10~31)

■ Welcome

어머니(또는 나를 키워준 분)에 대한 기억 중 가장 생생하게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다면?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잠언 31:10~31

■ 서론

오늘은 어머니날 주일이다. 어머니는 가족이 편히 잠들기 위해 먼저 깨어 있었던 사람이다. 가족이 웃기 위해 혼자 견뎌던 사람이다. 자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눈물로 붙들어 준 사람이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 속에서 많은 어머니들은 낯선 땅과 외로운 현실 속에서도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일했고,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미래를 먼저 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특별히 자녀들은 때로 그 희생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랑도 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잠 31: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

■ 관찰 질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해답 1.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다(1절).

(잠 14:1)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 주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선택한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 그녀는 남편을 세워준다(12절).

(12절)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워 주는 사람이다. 말로 세워 준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어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

이런 가정의 남편은 다시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 힘으로 가정을 지켜 간다.

2. 그녀는 자녀를 세워준다.

(28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현숙한 여인은 자녀를 사랑으로 세운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후회와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사랑을 보신다.

* 닉 누이치치의 어머니의 격려의 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아이란다.”

✿ 적용 질문 1

- 1) 내 삶에 나를 말 한마디로 세워준 사람이 있나요?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면 나눠주세요.
- 2) 나는 가까운 사람(가족, 친구, 공동체 지체)에게 주로 세워주는 말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너뜨리는 말을 할 때가 있나요? 최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해답 2.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은 가정을 끝까지 품는 사랑이다(27절).

(27절)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보살피고”라는 말에는 ‘깨어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다.

1. 그녀는 가족의 먹을 것을 책임진다.

(14~15절)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2. 그녀는 가족의 삶을 따뜻하게 품는다.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집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따뜻하게 품어준다.

3.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다.

(18절)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 적용 질문 2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사랑을 보신다”는 말이 내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부모로서, 혹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족함과 함께 나눠주세요.

2) 지금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관계나 역할이 있나요? 그 자리를 끝까지 품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나요?

해답 3.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이다(20절).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아픔도 본다. 힘든 사람의 손도 붙들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낸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기뻐하신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신 15:10).

현숙한 여인은 자신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한다. 교회를 섬기며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지혜이다.

왕하 4장의 수넴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선지자가 실 수 있는 작은 방을 마련하고, 침상과 책상까지 준비해 주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나누었다. 그 섬김이 공동체를 살렸다.

✿ 적용 질문 3

1)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아주 작은 섬김이었지만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됐던 경험 — 내가 받은 것이든, 내가 한 것이든 — 이 있나요?

해답 4.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은 결국 열매로 나타난다(29~31절).

(29~31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의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의 삶은 결국 열매로 나타난다. 집에서는 남편과 자녀의 존경을 받으며 밖에서는 이웃과 공동체의 신뢰를 받는다. 그런데 이 칭찬은 자신을 드러내며 얻은 칭찬이 아니라 묵묵히 사랑하며 살아온 삶의 열매이다. 새벽의 기도, 눈물의 인내, 보이지 않는 희생, 가족을 위한 헌신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나타난다.

✿ 적용 질문 4

1) 현숙한 여인의 칭찬은 자신을 드러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사랑한 삶의 결과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있나요?